강원도 폐광지역의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정선에 만들어진 카지노에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들고 있다. 벌써부터 도박 중독증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생업을 포기하고 이곳에서 투숙하며 몇천만 원을 날리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개인적인 파산은 물론 이혼이나 별거 등 가정파탄까지 불러올 수 있는 도박. 왜 도박에 빠져들어서는 안되는지 경전에서 알아본다.

이렇게 들었다

도박

"죄악만 키우는 결과된다"

▩도박에 빠지는 사람에게 여섯가지 위험이 있다. 이기더라도 미움을 사게 되고, 지게 되면 재산을 잃어 슬픔에 빠지며, 재산이 줄어들고, 법정에서는 그 말에 무게가 없게 되며, 친구나 관청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혼담에 지장이 있게 된다. 〈선생자경〉

▩재산을 잃는 여섯가지 원인은 술 마시기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며, 여자를 밝히고, 도박에 빠지고, 나쁜 친구를 사귀고, 게을러 방일함에 젖는 것이니라. 〈아함경〉

▩여자에게 미치고 술과 도박에 빠져 버는 족족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곧 파멸의 문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숫타니파타〉

▩재물에는 여덟가지 위태로움이 있어 손해는 있고 이익은 없으니, 그중 하나는 도박에 빠져들어 재물을 가치롭게 쓰지 않는 것이다. 〈중본기경〉

▩술에 빠지면 가난하게 되고, 스스로 헤아리지 못해서 재물을 가벼이 여기고, 사치를 좋아함으로써 집안을 망쳐 화를 부르며, 남들과 노름하고 술을 마시면서 다른 여자를 엿보게 된다. 〈장아함경〉

▩무리하게 구하지 않고, 분수를 알아 만족할 줄 알며, 남을 속이는 삿된 직업으로 생활하지 않고, 법답게 재물을 구하며 법답지 않은 것은 따르지 않는 것을 바른 생활(正命)이라 한다. 〈사제경〉

▩남의 재물을 빌려 이자가 늘어나는 것도 큰 괴로움이다. 남의 빚을 지고서 갚지 못해 독촉받는 것도 괴로움이요, 빚받을 사람이 집으로 자주 찾아오는 것도 괴로움이며, 빚을 갚지 못해 구속당하는 것도 큰 괴로움이다. 〈중아함경〉

▩나라의 왕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왕의 권위를 잃게 되고 나라에는 도적이 들끓게 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춤과 노래와 도박 등에 빠져 관료들을 살피지 않는 것이다. 〈증일아함경〉

▩보살은 자기 재물에 만족할 줄 알기에, 남을 사랑해서 침해함이 없다. 물건이 남의 것일 경우에는 남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으로 도둑질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며, 심지어 그것이 풀잎일 때라도 주지 않으면 취하는 법이 없다. 하물며 다른 생활필수품이야 이를 것이 있겠는가? 〈화엄경〉

▩사람이 만족할 줄 모르고 도박을 해서 오직 더 많은 것을 구하고자 한다면 죄악만 키우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보살은 늘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가난하더라도 도를 지키며, 오직 지혜 닦는 일에만 정진해야 한다. 〈팔대인각경〉

▩남의 재물에 탐심을 일으키지 않는 자는 후생에 사람이 되어 부와 즐거움을 얻는다. 〈태자쇄호경〉

정선 카지노 '북적'…한탕주의 '망국병'

물자 세상보기

뿌리는 탐욕심 '삼계 태우는 불길'

正見-正思-正命 고해 벗어나는 길

성기서
서원대 교수

지난 2일 문을 연 강원도 정선 폐광촌 스몰 카지노에 연일 사람이 몰려들면서 여러가지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망국병이다. 일하지 않고 단번에 떼돈을 번다는 생각. 카지노 말고도 경마, 경륜, 각종 복권을 포함해 도박이란 것이 정부에 의해 조장되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세칭 말세가 지금이란 생각이 든다. 사람들이나 나라나 나이가 들면 들 수록 더 슬기로워지고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할 텐데, 우리나라는 모두가 거꾸로 나이를 먹는 것 같다.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힘써 노력한 정당한 열매를 얻기 보다는 '우연에 의한 한탕주의'로 팔자고쳐보자는 허무맹랑한 기회주의 풍조의 만연인가?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은 반박을 할지도 모른다. "정부까지 나서서 합법적으로 인정한 도박인데 뭐가 잘못됐느냐?"고. 자신만을 위한 이기주의는 그 사회를 끝내 망치고 만다는 단순한 사실과 함께, 이 사람은 중요한 한 가지를 잊고 있다.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고 만물의 영장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바로 그의 영속적인 '가치추구'에 있다는 사실을. 이 가치는 삶의 의미를 갖다주는 토대로서, 나와 남을 동시에 이롭게 하는 특성으로서 자유, 평등, 평화를 그 본질로 한다. 지금 정선의 폐광촌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조금이라도 위와 같은 생각이 남아있는지를 살펴 볼 일이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도박은 기독교의 하느님도 사탄도 참기 힘든 유혹의 하나였다. 구약성경의 '욥기'가 그 대표적인 본보기다. 독실하게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욥의 신심을 걸고 하느님과 사탄이 도박을 해서 결국에는 하느님이 이긴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기독교에서는 도박을 통해 중요한 가르침을 펴고 있다. 인간과 신의 하나 됨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는 수단으로서 도박이 이용된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도박을 한다. 도박을 하는 심리도 따지고 보면 그 뿌리는 탐욕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탐욕심은 경전에서 '삼계를 태우는 불길'에도 비유되며, 특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 남긴 말씀을 담은 〈유교경(遺教經)〉에서 부처님은 이것을 "독사, 사나운 짐승, 또는 원수보다도 더 두려운 존재로 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꿀 그릇을 손에 든 사람이 이리 저리 까불며 날뛰느라고, 보는 것은 오직 꿀뿐이요, 바로 앞의 깊은 구덩이는 보지 못함과 같으며, 또 그것은 고삐도 없는 미친 코끼리나 나무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커다란 원숭이만큼이나 제어하기가 어려우므로, 재빨리 붙들어 함부로 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가르치셨다.

도박에 빠진 사람의 마음은 이와 같기에 현실을 바로 보지(正見) 못한다. 바로 보지 못하기에 바르게 생각하지(正思) 못할 것이고,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기에 바른 삶(正命)을 살 수 없을 것이고, 나아가 올바른 정신집중(正定)에 들어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깨달음의 길에 들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부처님은 어떠신가? 한 나라의 왕위를 박차고 수행자의 길로 들어섬은 필자와 같은 중생의 눈에는 인생 최대의 도박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해탈과 수많은 중생들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것이었다. '구세대비'라는 보살의 서원으로 초인적인 정진 끝에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여 수 많은 중생을 건지신 자리이타의 우주적 도박인 셈이다. 도박을 하려면 부처님처럼 해야겠다.

열·린·마·당

해외 유출 문화재 어떻게

지난달 26일 문화재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해외유출문화재는 일본·미국 등 20개국 7만4천548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문화재청의 해외소재 문화재 현황 파악 예산은 지난해 4877만원, 올해 5502만원에 불과해 정부가 과연 유출 문화재 환수에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이들 문화재를 우리 것으로 다시 끌어안을 수는 없을까?

해외유출문화재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문화재 전문가들에게 그 방법을 물었다.

"반환 요구보다 '무상기증' 유도"

이호관〈前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

해외에 유출돼 있는 문화재를 현실적으로 되돌려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증'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외교적으로 불협화음을 낳는 '반환'이나,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한국관' 설치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다.

해외유출문화재 중에서 반환된 것은 4천여 점에 불과하다. 문화재를 약탈했다는 사료적 증거가 명백한 일본을 제외하면, 반환요구에 응해줄 나라는 없다. 또한 한국관 설치 역시 재정적 한계가 따른다. 하나의 한국관을 설치하는 데는 30여억원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기증'을 받기 위해서는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는다. '기증' 받을 수 있는 해외유출문화재의 범위는 넓다. 문화재 유출경위는 내국인이 선물하거나 헐값에 판매하는 경우와 전쟁 등 정치·사회적 혼란기에 국내에 거주했던 외국인이 강탈·습득한 경우인데, 선물·판매·습득으로 유출된 문화재를 '기증' 받는 사례가 아주 많다.

그런데 기증을 받기 위해서는 유출문화재에 대한 치밀한 조사와 해외 주재 문화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사를 통해 유출문화재에 대한 정브를 수집하고, 해당 문화재 소장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물론 이에 앞서 정부의 의지와 재정적 지원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문화재 관련 예산이 0.2%를 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은 반환이나 재구입은 고사하고 '기증'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에도 힘들 정도로 열악하다.

"현지 한국관 설치 보존 활성화"

손희정〈한국국제교류재단 박물관담당〉

최근 프랑스와의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에서도 경험했듯이 한 번 국외로 유출된 유물의 공식적인 반환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국제적으로도 약탈문화재 반환을 위해 많은 소송과 분쟁이 계속되지만 반환에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반환이나 기증을 받는 것보다는 '한국관' 설치를 통해 우리문화재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현실적이다. 해외에 유출된 우리 문화재들이 대부분 제대로 전시, 관리되지 못하고 박물관 수장고에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은 곧 '한국관' 설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1990년대 초 설립이후 주요사업으로 추진해온 해외박물관 한국실 설치 사업은 한국유물을 다량 소장하고 있는 해외 주요 박물관에 한국미술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이들 유물이 보존, 관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통해 우리 문화예술을 세계인들에게 소개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다.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인류문화의 보고인 이들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우리 문화재를 만났을 때의 감격은 비로소 우리 문화재가 세계인들이 감상, 관리하는 세계인의 문화재로 인정받고 있다는 뿌듯함일 것이다. 그러나 전시실 설치가 해외 문화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많은 유물들이 여전히 손상된 채 보존처리 전문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고, 한국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국내 전문기관이나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기고

"해외이주 급증 왜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가"

김병관
아주대 교수·사회학

최근 우리 사회의 위기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해외이주의 급증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낯설은 타국에서의 삶을 찾아 기꺼이 한국을 등지고 떠났다. 최근 한 일간지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한국을 떠나 외국에 정착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8,929명 중 약 80%가 "기회만 온다면 이민 가겠다"고 답변하는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 이민자 혹은 이민희망자들의 다수가 소위 우리사회의 무게중심이 되어야 할 고학력, 고소득, 중산층이라는 점이다. 과거의 해외이민들과 비교하여 볼 때, 이들 신이민자들은 그 동기에 있어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 과거의 이민이 보다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아 떠난 '경제형' 이민이라면, 최근의 이민현상은 한국이 싫어서 떠나는 '탈출형' 이민이다. '한국사회에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고국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모든 것이 다 문제이다. 믿고 의지할 만한 국가적 비전이 없고, 정치는 국민의 조소의 대상에 불과하다. 정당한 보상체계에 대한 사회적 신뢰 또한 무너진 지 오래이다.

이런 곳에 누군들, 왜 살고 싶겠는가? 국적이 소비재의 일종이라면, 내가 캐나다 국적을, 호주 국적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안 갖겠는가? 민족주의적 감상을 앞세워 이들을 비난하지 말자. 그건 구시대의 해답이다.

못나가게 할 수는 없다. 안나가게 해야 한다. 사람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시대에 사람을 떠나가게 만드는 이 사회는 분명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비전을 제시하라. 서로 믿고 살만한 사회를 만들자. 조금씩 양보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자. 서로 격려하고 조금만 친절해지자. 떠밀어도 안나가는 사회, 그것만이 해답이다.

국제특허 CE마크획득

스님, 이제 안심하고 운전하십시오. (기도와 업무에 바쁜 스님과 불자님들의 필수품)

차량 무선 핸즈프리 3Free 〈 ① 핸즈 프리 기능 ② 충전 프리 기능 ③ 고정 프리 기능 탄생!!

CE마크란? 유럽연합의 통합규격 인증마크를 말함

3Free 하이테크 기술의 결정체

1. 별도의 시공이 필요없는 시가잭 장착형

3-FREE는 별도의 시공없이 시가잭에 꽂기만 하면 고정되며, 바로 충전과 핸즈프리 기능이 이루어집니다.
※ 기존제품처럼 양면 테이프로 붙이거나, 나사로 죄는 불편함을 해소함

2. 충전완료후 자동 차단기능

3-FREE는 핸드폰에 충전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충전기능이 차단되어 핸드폰의 노화와 화재를 예방합니다.

3. 비밀 통화기능

3-FREE는 차량내에서 통화중 다른 탑승자가 있을때 개인적인 통화를 할 수 있게 설계하였습니다.

4. 초간편 다기능, 무선 핸즈프리

3-FREE는 시가잭에 꽂기만 하면 모든기능이 한번에 이루어 지며 다른 조작은 일체 필요없습니다.
별도의 옵션이 필요 없으며, 외부선이 없어 차량안을 쾌적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방판/직판 조직을 운영 중인 분이나, 세일즈에 자신있는 분들께 최고의 고수익 아이템입니다.

예상외의 짭짤한 수입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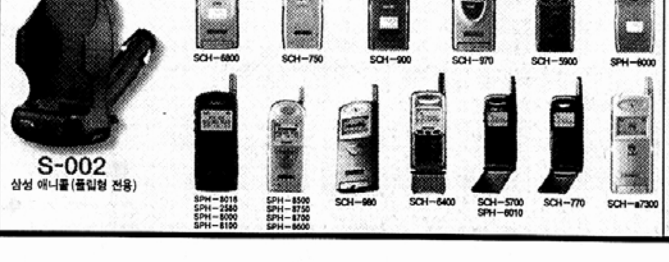
출시 후 상품이 동이날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는 「쓰리프리」 취급점을 모집합니다.

부다콤 Buddhacom
OCTACOM
서울 종로구 인사동 159 象갤러리 405호
문의전화 : (02)722-1050
FAX : (02)722-0293

최첨단아이템 「쓰리프리」 대리점·특약점모집
◆ 영업팀장(본부장)초빙 : 조직관리 3년이상 有경험자 주부팀 환영
◆ 영업 관리직/텔레마케터 : 男·女 ○○名
◆ 女 경리사무직 : ○名

시가잭에 꽂기만 하면 OK!
지금 전화주십시오.

3Free 사용가능 기종

핸즈프리
충전프리
고정프리

■ 소비자가 : ₩68,000